

A-5. 한국인의 상악 전치부 심미 인지선호도 및 정상 치은의 형태 분포

안기연*, 이주연, 김성조, 최점일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연구배경

현대 치의학에서 심미는 치과의사와 환자들에 있어 공통적으로 주된 관심의 주제가 되고 있다. 이이 본 연구는 상악 중절치 치은선의 형태, 상악 측절치 치은변연의 위치, 인접 접촉점의 길이의 변화에 따른 일반인과 전문인의 심미 인식도 차이를 규명하고, 이 결과를 건강한 치은을 가진 청년의 상악 전치부 치은 형태와 비교함으로써, 상악 전치부의 심미적 치은 선 형태에 관한 임상 지침을 설정해 볼 목적으로 시행하였다.

연구방법 및 재료

상악 전치부의 형태를 모식적으로 그려 설정한 기준 지표에 따라 의도적으로 변형하였다. 변형된 그림이 그려진 설문지를 일반인 500명과 전문인 24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임상적으로 건강한 치은을 가진 치과대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상악 전치부 사진을 찍어 설정한 기준지표에 따라 심미를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측절치 치은 변연의 높이에서 일반인과 전문인 모두 측절치 치은변연이 중절치 치은변연보다 0.5mm 아래에 위치한 형태를 선호하였으나, 그 다음으로 일반인은 측절치 치은변연이 중절치 치은변연의 높이와 같은 형태를 전문인보다 더 선호하였다. 중절치 치은선의 형태에서 일반인은 치은의 최상방점이 약간 근심으로 치우친 형태를 선호하였고, 전문인은 약간 원심으로 치우친 형태를 선호하였다. 접촉하는 수평선분의 길이에서 일반인은 치관폭의 2/9의 수평선분을 가지는 치은선 형태를 선호한 반면, 전문인은 치관폭의 1/9의 수평선분을 가지는 치은선 형태를 선호하였다. 일반인은 치관 길이의 2/3의 인접 접촉점을 가지는 형태를 선호하였고, 전문인은 치관 길이의 1/2의 인접 접촉점을 가지는 형태를 선호하였다. 실제 치은은 측절치의 치은변연은 중절치의 치은변연보다 낮게 위치한 형태가 많았고, 중절치 치은선은 치관폭의 2/9의 수평 선분을 가지는 형태가 가장 많았으며, 인접접촉점은 치관 길이의 1/2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결론

측절치 치은변연의 높이, 중절치 치은선의 형태, 인접 접촉점의 길이에서 일반인과 전문인 사이 심미 인식도에 차이가 있었고 이는 실제 건강한 치주 조직에서 많이 존재하는 형태와도 차이가 있었다. 이런 결과는 실제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전문가와 일반인은 심미적인 형태의 기준에 대해 서로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